

법회 안내

정종선원(02)573-8506
고승초청 영가 천도법회
오전10시30분
7월1일 월주스님
7월8일 무진장스님
7월22일 종범스님
8월5일 혜정스님
초하루법회1일(음) 오전10시30분
금강법회 매주 월 오전10시30분
교리법회 매주 수 오후1시
미타사(02)662-4736
신중기도 1~3층(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철야참선 매주 토 저녁10시
도선사 포교당(02)352-5405
신중기도 1~3층(음) 오전10시
미타재일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덕명사(062)365-036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장년부법회 1·3주 일 오후4시
전북 불교회관(0652)77-349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장년부법회 매주 목 오후7시
대학부법회 첫째 월 오후6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광주 금륜회관(062)224-0175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장년부법회 매주 일 저녁6시
정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자광사(042)822-9219
신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화엄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성지순례 매월15일 오전6시
교양대학 매주 일 오전9시30분
거사법회 첫·셋째 수 오후7시
철야기도 매월 셋째 토 오후7시
화생법회 매주 토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혜진선원(032)693-3326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보살법회 15일(음)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예천포교원(0584)654-678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장년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용천사(032)502-6058
화엄기도 매월1일(음)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주 금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화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보살심으로 동참한 이들에 감사
지장전·청소년수련장도 세울터”

국내최대 3층목탑 보탑사 통일대탑 회향한 지광 스님

“단정장 한석성 할아버지는 공사비로 받은 2천만원 모두를, 조희환 대목은 1천만원을 도로 내었어요. 시공을 맡았던 지현건설의 문화재단장 김영일상무는 자기집을 잡혀 직원들 월급을 줬답니다. 여기서 일한 사람들은 사가래 하나씩이라도 동참했습니다. 모두가 보살님들입니다. 자질로 큰절을 올리고픈 심정입니다.”

지난 9일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3층목탑을 완공하고 3층의 미륵불에 이어 1층에 동서남북 4면에 12분의 부처님을 모신 보탑사주지 지광스님(삼선포교원장) 그래서 끝내 기쁘고 고마워서 눈물을 보이고 말했다.

통일대탑을 두고 크기가 말해 국내최대라고 하는데, 그

것 말고 황룡사 9층목탑을 세운 선조들의 장인정신과 기법을 재현한 것과 사방불 신앙의 복원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사방불신앙은 동서남북 각 방위에 부처님을 모시는 신앙형태인데, 한국불교 초기에 나타났다. 이는 한국불교

사방불신앙 재현... 법보전에 법화경 석경 봉안추진

의 전래가 중국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불교를 전해준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보탑사 통일대탑은 공사기간 40개월, 연구·설계까지 합하면 5년이 걸렸다. 연건평 152평짜리 건물이며 6개월에 지을 수 있다며 의아하게 생

이후에 보탑사가 있는 보현산 기슭 90만평 부지에 요사채와 종각 산신각 지장전을 지어 온전한 마무리이다. 3차 계획은 청소년수련장 건립이다.

그러나 시작의 때는 정해져 있지만 끝은 스님 스스로도 모른다고 답한다. 그렇다고 결코 서두르지는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분명 하지만 집적으로 불자들의 시수에 의존하니 빠르면 1년 안에 되고, 늦으면 다음 대의 스님으로 이어지겠지요. 서두른 걸음은 반드시 발을 헛딛습니다.”

한편 지광스님은 오는 8월 15일 해라시아 문화연구소(소장 신영훈)가 보탑사에서 개최하는 ‘한국의 사원건축’ 강좌에서 ‘보탑사 세운 뜻’을 주제로 강연한다.

정성은 기자



◇왼쪽부터 김동훈 안동일 강문규씨, 송산 시현 환월 증후스님.

구호기구 ‘이웃을 돕는 사람들’ 창립

세계가, 질병, 아동 국제기 고 활동을 펼칠 ‘이웃을 돕는 사람들(회장 송산스님)’ 창립 대회가 지난 14일 조계종 총무원 1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



◇왼쪽부터 법산스님, 허길홍 목장배 김생민씨, 녹원 혜초 원산 성관스님, 홍운식교수.

병원 건립위한 동국불교미술인展

동국대학교 부속 불교종양병원 건립기금미션 제2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이 지난 19~25일 관훈동 공평아트센터에서 성료됐다. 지난 19일 오후4시 거행



◇왼쪽부터 김동훈 안동일 강문규씨, 송산 시현 환월 증후스님.

제5회 불교인권상 시상식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가 제정, 시상하는 불교인권상 시상식이 지난 17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법당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총회의장 설정스님 포교부장 원혜스님



◇왼쪽부터 김동훈 안동일 강문규씨, 송산 시현 환월 증후스님.

청암스님 ‘불교, 절에 대한...’ 출판회

청암스님(금하선원장)의 불교인문학 입문서 ‘불교, 절(寺)에 대한 바른 이해’ 출판 기념회가 지난 17일 서울 소피텔메리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문화



노사문제 원만해결 촉구

필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9일 로얄호텔에서 김수환 추기경, 강원통목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통신과 서울지하철공사등의 노사문제를 관련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뉴욕 컨스칼리지 특별법문

대행스님 (한마음선원장)은 22일 뉴욕컨스칼리지 콘서트홀에서 열린 특별 대법회에서 뉴욕 시민과 불자들을 위해 법문을 했다. 지난 19일 도미한 스님은 라디오 TV등 방송에 출연 법문과 대담을 했으며,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수계법회도 참석했다.

장기이식법 추진위원회

법정스님(수덕사 주지·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권기종교

하계교육·법사 품수식

목정법학장(법사원 불교대학)은 '96 하계 소집교육및 법사품수식'을 당초 일정보다 늦춰 8월8일~11일까지 경북 김천 직지사 수련원에서 불행한다.

‘불자거리 어떻게...’ 세미나

류진수씨 ((사)부산 불교신도회 회장)는 오는 7월2일 부산일 보사 대강당에서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포교사회 후원으로 ‘불자거리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민족 예의 선양회장 유임

당형관씨는 지난 15일 한민족 예의도덕선양회 총회에서 회장에서 유임됐다. 이날 총회는 새 이사 7명을 선임했다.

인물협 창립11돌 기념법회

법혜스님 (민족통일 불교 중앙협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창립11주년 기념법회를 불행했다.

중흥 사무총장 퇴임

백래선법사는 구리시 관음정사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에 전념키위해 종교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난 5월말로 사퇴했다. (034)67-2812

‘오운화상’ 수상

김중삼씨 (아동문학가, 유석초등학교 교감)는 지난 13일 한국청소년기금이 제정한 제2회 대한민국 오운화상(문학부문)을 수상했다.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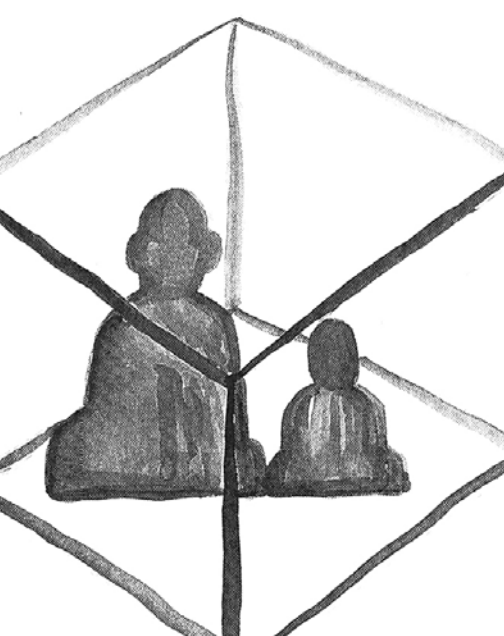
▲‘불보신론’ 창간 사원 모집=봉도사는 주간 ‘불보신론’에서 근무할 경력·수습기자 및 광고·업무 직원을 모집한다. 입사 지원서 제출 6월22~25일. (0525)83-8553
▲조계사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조계사는 문화강좌 7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강좌는 불화그리기, 사예, 사군자, 관소리, 단소, 가야부르기, 수지침, 꽃꽂이, 다도, 선체조 등. (02)720-1390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상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천만 분자 여러분의 참 대법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합본료 3천 원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59호(95.12.27)
*가격 5000원 (발송비 별도)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경인리과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생활 속의 불교 78

마음의 오체투지 - 열쇠를 받는 길

손님이 양전하지 않으면 이발사는 머리를 깎아 줄 수 없다. 환자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의사는 수술을 할 수 없다. 원하는 결과를 보려면 그렇게 내어 맡겨야 한다.
충직한 하인은 주인을 믿고 따른다. 일체를 주인의 결정에 맡긴다.
성실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하게 된다.
만약 스승을 불신하는 제자, 주인을 못 믿는 하인이 있다면 그는 이미 제자나 하인이 아니다.
믿음, 말김, 그것이 없이는 열쇠를 받을 수 없다. 주인이 곳간 열쇠를 넘겨 줄 리도 없고, 스승은 담의 결정을 대물림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믿고 맡기는 지극한 정성이 있을 때 비로소 스승과 제자, 주인과 하인 사이엔 서로가 둘이 아닌 교감이 가능해진다.



요, 말김이다. 지심귀명례이다. 나를 버리고 일체를 버리면서 귀의하겠노라는 마음의 다짐이다. 삼계의 도사이신 부처님께 하강은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알몸으로 엎드린다는 뜻이다. 송아지가 어미 소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기가 어미 품에 안기는 것이다. 거기에 자기라는 상은 없다. 나의 생각이라는 어리석음도 없다.
완벽한 오체투지만이 열쇠를 받는 길이다. 그밖에는 어떤 길도 없다. 있다면 그것은 의도의 가르침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스승 삼고 너 자신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가르치셨다. 자성삼보에 귀의하라는 말씀이다. 형상 있는 그 어떤 것, 심지어는 당신의 색신까지도 부정하셨다. 귀의할 곳은 오로지 다라마와 진여 자성뿐이라고 하셨다. 오체투지는 바로 이 진여 자성을 믿고 일체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어떤 구세주도 내 마음 안의 구세주 진여 자성만 못하다. 따라서 형상을 믿고 이름을 믿고 허공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나 귀의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믿고 귀의할 곳은 오로지 진여 자성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어미요 나의 뿌리요 본래면목이다.
몸이 아픈면 의사를 찾고 수학문제가 안 풀리면 스승을 찾듯이, 아이가 어미를 찾듯이, 하인이 주인을 따르듯이 그렇게 나의 뿌리 - 불구부정의 영원한 생명에 귀의한다면 삶은 분명 편안하고 싱그러워진다. 어미의 품속에 안긴 아이의 삶처럼 그렇게.
진여자성, 나의 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맡기는 삶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삶이다.

협찬: 주인공